

[목포권]



성계로 해양오염 측정한다

무척추동물인 성계를 이용해 바다의 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성계로 해양에 유입된 각종 유해 물질이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무척추동물의 초기 생활사'를 이용한 해양생태계 독성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했다.

성계는 산란시기를 달리하는 다양

한 종이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고 성숙한 암수로부터 다양한 정자와 난자를 얻을 수 있어 실험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실험 용액을 성계에 주입해 난자와 정자가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수정이 이뤄지면 해양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며 바다가 오염돼 있다면 수정이 안된다는 것.

그동안 연안 어장에 대한 환경조사는 플랑크톤 등을 이용한 화학적 분석 방법이 사용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왔다.

그러나 서해수산연구소가 개발한 방법대로 성계를 이용할 경우 적은 비용과 신속한 시간내에 해양 오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름과 유화제 등 해양사고로 인해 유출된 유해물질이 생태계에 미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

산란시기 수정 여부로 판별

'생태계 독성 측정법' 개발

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해양에 직접 투기되는 폐기물 독성을 실시간대에 평가할 수 있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성계를 이용한 독성평가 기법을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기관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올 여름 '바다 추억' 만드세요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욕장 5일 개장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
풀장(사진)과 해수욕장이 5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외달도 해수풀장 및 해수욕장은 유아풀장과 대형 성인풀장 2개가 있으며 펜션형 한옥민박 3동과 마을민박 20가구가 설치돼 있다.

또 그늘막 27동과 텐트촌 26동, 사워장, 유흥단지 조경, 선착장에서 텐트촌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카트 등 편의시설도 보강

됐다.

오는 19일에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달도 특설무대에서 인기가수 축하공연등 다채로운 개장식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외달도는 지난 2003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우리나라 100대 아름다운 어촌'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2008 휴양하기 좋은 섬 Best30'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승용차 요일·카풀제 운영

고유가 대책본부 발족

목포시가 대책 추진본부를 발족하는 등 고유가 극복에 악안함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3개 팀 16명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가로등 격등제', '경관조명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연간 1억6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특히 '예산 10% 절감하기' 운동을 통해 절감한 113억원의 예산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집중 재투자 할 방침이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시 산하 직원들의 출·퇴근용 자전거 210대를 구입키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항 도로·저지대

바닷물 침수 피해 우려

목포항 인근 도로와 저지대가 조위 상승으로 바닷물을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목포시는 3일부터 6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01m~5.12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며 해수 침수 방지对策을 위한 비상 근무에 나섰다.

시는 바닷물 수위가 만조 때 5.12m 까지 상승할 경우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된다며 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비금도 일대 무인도

개발 여건 실태조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신안군 비금면 소재 무인도에서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이달부터 6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무인도서의 특성에 따라 ▲개발 가능 ▲이용 가능 ▲준보전 ▲절대보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목포=임영춘기자 sslee@

2008년 7월 3일 목요일

제18102호 13

민선 4기 2년 결산

■ 서삼석 무안군수

세계적 수준 기업도시 만들기 총력



무안군의 민선 4기 전반기 성적표는 수상 실적이 말해준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29개 분야에서 46억6천만원에 달하는 상 사업비를 획득했다.

전국 양주산지로서 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양파브랜드 사업을 유치하고, 무안 황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후반기에 군정의 최대 역점사업인 무안기업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기업도시의 성과를 좌우할 한·중 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5월 북경에서 열린 한·중 경제포럼에서 서 군수가 투자여건 등을 설명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잇따르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남약 신도시 인구 유입에 대비,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안 건의 전반기에는 100% 확정되었으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무안·합평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2년 11월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입지공모제로 부지를 확정해 전국적 인 모범사례로 기록됐으며 타 차지단체들의 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사업비 328억원(보조금 126억원, 민자 202억원)이 투입돼 완공됐으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무안·합평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무안 환경관리종합센터 본격 가동

328억 투입 2년만에 준공

하루 45t 생활폐기물 처리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1일

준공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2년여 공사기간에 무안을 성동리에 들어선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하루 45t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20만4천m³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10t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앞으로 남악

신도시를 포함해 무안군 관내 생활폐

기물과 인근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로템 등이 출자한 민간투자사

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